

중국, 글로벌 석유기업 사냥 “활발”

Sinopec, Repsol의 브라질 자회사 지분 40% 매입 ... M&A 잇따 성공

중국 Sinopec이 Addax에 이어 브라질 석유기업의 지분 인수에 성공하는 등 해외진출 행보를 넓히고 있다.

인터넷 매체인 망역재경(網易財經)은 스페인의 대형 석유기업 Repsol의 발표를 인용해 Sinopec이 71억달러를 투자해 Repsol 브라질 자회사 지분 40%를 매입했다고 10월4일 보도했다.

107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Repsol의 브라질 자회사는 Sinopec의 투자로 라틴아메리카 최대 에너지기업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유전탐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Sinopec은 이에 따라 2009년 스위스 유전개발기업 Addax를 80억달러에 매입해 이라크와 서아프리카 유전을 확보한 이후 다시 대규모 해외투자에 성공했다.

유전개발 자금을 필요로 하는 Repsol과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원하는 Sinopec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Repsol은 2009년 기준으로 브라질의 3대 석유 공급기업으로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유전을 보유한 외자기업이며 2019년까지 브라질에서 유전 개발에 14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04>